YooWon Kim

5/7 Tues

1. 유진투자증권 신동수 채권연구원은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진한 내수소비등이 있지만, 수출과 저인플레이션은 해결되지 않고 있기에,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억제정책 조정을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 연구원은 한국은행은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한 이상 금리인하를 연기할 것이라 예상했다. 그렇다고 하여 내년까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없다는 말은 아니다. 소비세 인하, 기업구조조정, 김영란법과 같은 자극적 정책은 또 다른 경기 위축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다.

2. 지난 수요일, 코카콜라 회장 및 최고경영자인 도글라스 이베스터는 유럽 소비자들에게 야기된 최근 문제를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본사는 제품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절차”를 따른 것이라 성명서에 약속했다. 이베스터는 성명서에서 “저희는 지난 몇일 간 저희 유럽 소비자들이 겪은 모든 문제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언급했다. 코카콜라에서 제조된 청량음료캔을 마신 후, 벨기에에서는 100여명이 넘는 소비자들과 프랑스에서는 2명의 소비자가 두통, 어지러움, 복통을 호소했다.

“113년간의 저희의 성공은 소비자가 가진 제품의 신뢰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뢰는 저희에게 신성시 되고 있습니다. “고 이베스터는 말했다. 그는 “저는 유럽의 저희 소비자, 고객, 그리고 국가 공무원을 안심시키고 싶으며, 코카콜라 본사가 높은 품질 수준에 도달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절차를 따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족함은 허용되지 않으며, 저희는 이 작업이 반드시 완료되기 전까지 쉬지 않을 것입니다”고 덧붙였다.

코카콜라는 초기 6월 9일 벨기에에서 처음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 저자세를 보였다. 지난 화요일, 세계적인 청량음료 제조사는 아틀란타주 조지아시 본사에서 문제를 확인하였다는 매우 기술적인 성명서를 발행했다. 코카콜라 측은 “정밀한 조사 결과, 건강 및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두 문제는 벨기에 시장에 제한되며, 이와 같은 품질 문제는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에는 관련이 없습니다.” 사측은 벨기에 앤트워프 공장에서 잘못된 종류의 이산화탄소를 사용하여 음료의 맛을 저해시켰고, 프랑스 덩케르트에서는 살진균제 오염이 탄삼음료의 악취를 일으켰다고 반박했다.